

태평양전쟁기 휴 보튼의 대일정책 구상과 한국문제 인식

安 鍾 哲 *

- | | |
|------------------------|----------------------|
| I. 머리말 | IV. 한국문제 인식과 신탁통치 구상 |
| II. 웨이커크교도로서의 휴 보튼의 생애 | V. 맺음말 |
| III. 태평양전쟁 전후 대일정책 구상 | |

I. 머리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한반도는 새로운 가능성에 직면했다. 전쟁의 결과에 따라 독립이 되느냐 일본제국으로 더욱 편입되느냐가 결정될 것이었다. 전자에도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중경 임시정부와 더불어 많은 한국인들이 기대했던 즉각 독립의 길과 미국의 전후정책을 구상하고 있었던 국무부 실무진들의 독립 전과도기 설정이 그것이었다. 1943년 태평양에서 전황이 미국에 유리해짐으로 미국의 전후 아시아 구상은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

국무부의 실무진들은 전후 아시아의 평화가 일본 군국주의와 그 산물인 식민지 해체에 달려있다고 확신했다. 일본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던 한반도는 국무부 극동국(Division of Far Eastern Affairs)을 중심으로 일본 전문가들이 전후문제를 담당했다. 한국문제를 이들 일본전문가들이 다루었다는 사실은 국내외의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강사.

학자들에 의해 조금씩 알려져 왔지만¹⁾ 이들의 인적 배경과 대한정책 구상에 대해서 여전히 해명될 것이 많다.

이에 대해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정용욱은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대한정책의 함의들을 다루면서 특히 신탁통치를 미국의 전후 자본주의 질서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²⁾ 김지민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미국 영사였고 신탁통치구상을 1942년 초 실무진차원에서 제기한 랭던의 부정적인 대한 인식을 신탁통치의 주요근거로 들었다.³⁾ 그러나 부정적인 대한인식이 반드시 신탁통치로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의 '태평양문제연구회'(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이하 IPR)의 연구원이었던 그라단제브(A. J. Grajdanzev)와 그의 저작인 『현대한국 *Modern Korea*』에 대한 고정휴의 연구도 미국의 대한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⁴⁾ 이 연구는 그라단제브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는 것과 그의 다른 연구와 함께 IPR이 한국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의의가 있다.⁵⁾ 한편 한국과 무관할 것처럼 보이는 맥아더 당시 주일 연합군 총사

- 1) 커밍스에 따르면 1943년 말부터 국무부의 영토소위원회(Territorial Subcommittee) 관리들은 대 소련 경계심 때문에 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것을 계획했다. 이들은 보튼(Hugh Borton), 빈센트(John Carter Vincent), 랭던(William R. Langdon), 베닝호프(H. Merrell Benninghoff) 등으로 태평양전쟁 전후로 한국정책에 관여했다.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 113-114. 보튼에 대해서, 그의 회고록을 활용하며 일찍부터 주목한 한국연구자는 정용욱이다. 그의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과도정부 구상과 중간과 정책을 중심으로』(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35-36.
- 2) 정용욱, 위의 책. 이 책에 대한 서평은 송병권, 「미군정기 연구의 중간결산과 새로운 출발」 『역사와 현실』53(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04).
- 3) 김지민, 『해방 전후 랭던의 한국문제인식과 미국의 정부수립정책』 『한국사연구』119(서울: 한국사연구학회, 2002). 구대열도 구한말부터 서구가 가져온 한국에 대한 인식, 즉 '한국은 독립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신탁통치를 제기하게 된 배경이라고 주장한다.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 2』(서울, 역사비평사, 1995)제6장.
- 4) 고정휴, 「A. J. 그라단제브와 『현대한국』」 『한국사연구』126(서울, 한국사연구회, 2004).
- 5) IPR은 1925년 미국의 지식인들과 사업가들이 하와이에서 개최한 태평양회의를 통해

령관의 한국전쟁 전후의 한국인식 연구도 주목되는데 맥아더와 하지의 관계라든가 맥아더의 한국전쟁 전 도서방위선을 다룬다는 면에서 주목된다.⁶⁾ 전체적으로 이들 연구들이 한국문제와 관련이 있는 개별적인 인물들의 인식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정책담당자들과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 해명할 과제가 학계에 주어져있다. 이 논문은 미 국무부에서 동아시아문제를 담당한 휴 보튼(Hugh Borton)을 다름으로 학계에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 한다.

보튼은 학자, 관료로 태평양 전쟁 직전에 콜롬비아 대학의 일본사교수로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미 국무성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일본담당 실무관료 중 고위층으로 있으면서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에 몰두하면서 한국 정책구상에도 관여했다. 특히 종전 후 그는 극동국 일본과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한국학계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학계에서 그는 '전후 일본의 설계자'로 소개될 만큼 그의 역할이 잘 알려져 있다.⁷⁾ 그렇지만 한국문제와 관련된 그의 입장에 대해 검토가 아직 없다. 그의 회고록이 한국문제를 자주 언급하고, 그가 전후한국문제에 대한 정책보고서들을 남기고 있는 사실에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다.⁸⁾

만들어진 연구회로 태평양연안 국가들의 민간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했고 각국에 지부가 있었다. 식민지시기 조선지회와 조선지식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서울, 연세대 출판부, 2004), pp.284-308. IPR에 대한 우수한 연구는 油井大三郎, 『未完の占領改革: アメリカ知識人と捨てられた日本民主化構想』(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9). 특히 미국의 IPR참여지식인에 대해서는 pp.16-35.

- 6) 이상호, 「한국전쟁 이전 맥아더의 對韓인식」 『정신문화연구』28-1(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7) 보튼 회고록의 일러판 五百旗頭 眞 監修, 五味俊樹 譯, 『戰後日本の設計者:ボトンの回想録』(東京, 朝日新聞社, 1997)의 五百旗頭 眞(이오키베 마코토)의 "해설". 영문판은 Hugh Borton, (Forward by James W. Morley) *Spanning Japan's Modern Century: the Memoirs of Hugh Borton*. (Lanham, Boulder etc, Lexington Books, 2002)(이하는 보튼, 『회고록』)인데 일러판이 미리 발간된 이유는 위의 "해설"참조. 영문판에 몰리(James W. Morley), 이리에(Akira Iriye), 글럭(Carol Gluck) 등 미국의 일본 혹은 미 일관계 최고 전문가들이 추천사를 썼다.
- 8) 보튼에 대한 최근 우수한 연구는 Hitomi Kinuhata, "Hugh Borton: His Role in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이 다루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대일본정책구상과 입안에 참여한 실무진 중 핵심인물이다. 특히 그의 일본에서의 퀘이커(Quaker) 선교사로서의 경험은 대일정책수립과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형성에 중요했다. 둘째, 대일구상의 핵심인물인 그는 당시 일본 식민지인 한국에 대해서도 중요한 보고서를 쓴 사람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후 한국문제 처리에서 일본통들의 역할을 보여준다. 그는 일본선교사로 있으면서 한국문제에 대해 기초정보를 얻었다. 셋째, 그는 실무진차원에서 윌리엄 랭던이나 조지 맥쿤(George M. McCune)⁹⁾과 함께 한국에 대한 분석보고서와 함께 '신탁통치'안을 제기한 인물이다. 신탁통치 안은 당시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가 그 바탕에 있었는데 그는 한국인들의 독립 능력을 비하하지는 않았다.

II. 퀘이커교도로서의 휴 보튼의 생애

미국의 초기 일본학 창시자 중 한명이자 태평양전쟁기 대일정책의 건축가(a principal architect)로 평가되는¹⁰⁾ 보튼은 1903년 5월 14일 뉴저지(New Jersey)의 무어스타운(Moorestown)에서 퀘이커 교도의 3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나서 일찍부터 퀘이커 교육을 받았다.¹¹⁾ 1922년부터 필라델피아 외곽에 있는 해버포

American-Japanese Relations", M.A. Thesis(East Tennessee State University, 2004) 인데 1차 자료를 사용해서 보튼의 퀘이커 선교사, 정부관료, 일본학 학자라는 제 측면을 정리했지만 한국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 9) 맥쿤의 생애와 그의 한국학의 특징에 대해서는 Jong-chol An, "Making Korea Distinct: George M. McCune and His Korean Studie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7,(Seou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Winter, 2004).
- 10) 보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평가는 James W. Morley, "Obituaries: Hugh Borton 1903~1995,"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6, No. 1(Michigan,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Feb., 1997).
- 11) 퀘이커 교도들의 모임은 Friends Meeting이라고 하고 퀘이커 선교회는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라고 하는데 'Friend'와 'Quaker'는 동의어이다. 보튼, 『회교록』, p.11.

드 대학(Haverford College)에서 인문교육을 받으며, 다른 퀘이커 교도들과 함께 1차 대전 후 재건·구호사업에 톡툰이 참여했다.¹²⁾

대학졸업 직후인 1926년 여름, 그는 윌버(Elizabeth Wilbur)와 결혼하고 1926년에 테네시(Tennessee) 동부 스모키(Smoky) 산맥 기슭에 있는 퀘이커 교도의 기숙학교인 프렌즈빌 아카데미(Friendsville Academy)의 사감 겸 교사로 부임했다. 이곳은 매우 가난한 농촌지역이었는데 이 시절의 서민들과의 접촉은 일반인들에 대한 그의 이해 폭을 넓혀주었다. 당시 테네시 법은 진화론 교육을 금지했으므로 진화론을 교육한 교장(Luther Warren)과 학교이사진과의 마찰이 있었다. 보튼 부부는 한 학기동안 교장 직무를 대리하기도 했지만¹³⁾ ‘근본주의적’인 지역 분위기는 자신들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마침 필라델피아 퀘이커 교단의 해외선교부는 선교사를 해외에 파견해 외국과 우호관계를 조성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부부는 일본 선교사로 자원했다. 부인은 퀘이커 여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자신은 일본 퀘이커 선교회의 대표 보울스(Gilbert Bowles)의 ‘평화사역 peace work’를 돕는 일을 했다. 그의 주된 역할은 가르치는 것과 함께 일본 상황과 일본 지도자들과의 면담결과를 선교본부에 보내는 것이었다.

3년간의 일본체류는 그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동경에서 그는 기숙사 사감과 영어강사 일을 병행하면서 많은 일본인 퀘이커교도들과 사귀었다. 이는 전후 일본 ‘은건파’의 부상과 미일 지적교류에 역할을 했다.¹⁴⁾ 그의 일본 체류 시의 활동과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일본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었다. 그는 톡툰이 일본을 여행했는데 특히 교토(京都)·나라(奈良)지역의 문화유적을 즐겼다.¹⁵⁾ 둘째는 이러한 관심과 함께 주

12) 보튼, 『회고록』, pp.5~6. 그는 1925년 여름방학 때 뉴욕 YMCA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의 배우자가 될 브린 모어대학(Bryn Mawr College)의 상급생 윌버를 만났다.

13) 보튼, 『회고록』, pp.7~9.

14) 대표적인 사람이 퀘이커 교도인 자유주의자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박사다. 니토베는 귀족원 의원과 동경 제일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후일 국제연맹의 사무차장(Undersecretary General)을 맡았다. 보튼, 『회고록』, p.20. 보튼은 태평양 전쟁 후 동경대학 총장을 지낸 자유주의자 남바라 시게루(南原繁)와도 교류했다.

일 영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샌섬(George Baily Sansom)¹⁶⁾이 주도하는 일본 연구 세미나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샌섬은 보튼의 삶에 스승(mentor)과 같은 존재로 이후에도 그들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¹⁷⁾ 셋째, 그의 임무 때문에 일본의 정치적 현실을 목도했다. 예를 들면 그가 일본에 도착하기 직전인 6월 4일 일본 관동군이 만주의 군벌 장쥘린(張作霖)을 폭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¹⁸⁾ 이후에도 일본의 팽창은 만주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 후 일본은 만주사변(1931)을 일으켰고 중국과의 갈등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과도 긴장관계에 들어갔다.¹⁹⁾ 1928년 2월 처음으로 남성 보통선거가 이루어졌고 다나카(田中)의 보수당인 정우회(立憲政友會)가 야당인 민정당(立憲民政黨)과 무산(無産)정당을 꺾고 중의원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그러나 여당과 내각은 급진주의자들(radicals)과 천황제²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수많은 급진주의자들이 정부

15) 그는 일본의 문화적 성취에 대해 나라의 호오류우지(法隆寺)를 높게 평가했고 특히 금당(金堂)에 있는, 한국에서 온 것으로 알려진 반가사유상에 대해 깊은 찬사를 보냈다. 보튼, 『회고록』, pp.23-25.

16) 샌섬(1883-1965)은 1904년부터 주 동경 영국영사관에서 1940년까지 일을 했고,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워싱턴에 있는 영국대사관에서 일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의 전시 협조외교에서 실무진 차원의 대표였다. 그는 보튼에게 일본학을 전공할 것을 권했고 콜롬비아대학에서 1940년부터 가르치면서 초대 일본학연구소장(1948-1952)을 역임했다. 2대 소장은 보튼이다. 보튼은 자신의 책, *Japan's Modern Century*, (NY: Ronald Press, 1955)에서 그에게 헌사를 썼다. 샌섬의 역할에 대해서는 細谷千博, 「ジョージ・サントムと敗戦日本: 一〈知日家〉外交官の軌跡」『中央公論』9월호(中央公論社, 1975) 참조.

17) 이 세미나의 내용은 책으로 출간되었다. George Sansom, *Japan: A Short Cultural Histor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43). 보튼, 『회고록』, p.18.

18) 일본사에서 20년대, 30년대의 다나카의 강경노선과 시데하라(幣原喜重郎)의 유화적 노선의 차이는 이리에 아키라(入江沼)/이성환 역, 『일본의 외교』(서울, 푸른산, 2003) 참조. 두 노선은 서구협조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근본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팽창정책이라는 면에서는 유사하다.

19) 이 과정에서 천황이 묵인하면서도 상황에 개입한 것이 지적된다. Herbert P. Bix, *Hirohito and the Making of Modern Japan*(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2000)7장.

20) 당시 천황인 히로히토(裕仁)의 즉위식이 1928년 11월 6일에 열렸는데 보튼 부부는

에 의해 체포되었고 정부는 국내외의 소식들을 검열했다. 그는 당시 일본사회를 '경찰국가 상황 the police-state atmosphere'이라고 보았다. 보튼은 1930년 중국을 거쳐 한국을 여행하면서 식민지의 억압성도 인식했다.²¹⁾ 즉 일본의 성취와 억압성이라는 양면을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기숙사 사감 재직 시 케이오대학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는데 그 중에 한국학생이 한 사람 있어서 한국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²²⁾ 세 나라의 젊은이들이 인식의 차이를 존중하고 태평양에서 평화로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의견의 차이를 존중하려 했다는²³⁾ 그의 생각은 순진하지만 다소 이상주의적 면을 보여준다.

일본은 대공황 후 엄청난 실업자가 생겼고 대학 실업자들이 급진적 사상에 기우는 것을 우려하여 그는 퀘이커 교도들과 함께 이들을 도왔지만 문제는 너무 심각했다. 일본 정부는 천황제를 중심으로 군사교육과 수신(修身)교육 등 '국체(國體)'확립을 대안으로 내세웠다.²⁴⁾ 일본 체류 마지막 해, 대학과정과 지도자양성소 기능을 가진 연구센터를 동경에 세우는 안을 세웠지만 양국의 퀘이커 지도자들은 반대했다.²⁵⁾

1931년, 일본에 돌아올 것을 전제로 미국에 돌아가 콜롬비아대학의 교육대학원에 등록을 했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미국 식민지사 전공 교수(Evarts B.

여기에 자리를 얻어 참석하게 된다. 천황의 즉위식 행사는 많은 일본인들에게 천황의 존엄을 알리는 상징으로 보튼의 천황제와 일본 국민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보튼, 『회고록』, pp.20~22.

21) 당시 일반적인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Herbert P. Bix, *op. cit.*, pp.205~214. 보튼의 개인 반응에 대해서는 보튼, 『회고록』, p.19, pp.35~36 참조.

22) 1929~30년 학기에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 7명의 일본인들이 거주하였다. Hitomi Kinuhata, *op. cit.*, pp.19~20.

23) Hugh Borton, "The Longstreth Dormitory in Tokyo," 16 October 1929, AFSCA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rchives in National Office in Philadelphia). Hitomi Kinuhata, *Ibid.*, p.20에서 재인용.

24) 보튼, 『회고록』, pp.31~32

25) 이 계획의 내용과 과정은 보튼, 『회고록』, pp.37~38.

Greene)에게 일본사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하자 자신의 동생인, 사업가이자 록펠러 재단의 이사(Jerome Greene)를 만나게 해주어서 보튼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게 되었다.²⁶⁾ 32년 여름, 하버드 대학의 6주 극동연구 세미나에 참석하고 가을부터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하버드에서 보튼은 평생의 친구들인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²⁷⁾와 파이스(C. Burton Fahs)²⁸⁾을 만나게 되었다. 그 후 2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되어고 1933년 여름부터 당시 아시아학이 발달되었던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The University of Leyden)의 라흐더(Johannes Rahder) 교수아래서 공부했다. 콜롬비아대학에 와있던 라이덴 대학의 방문교수(J. J. L. Duyvendak)의 권고가 결정적이었다.

1935년 1월부터는 동경대학에 가서 연구를 지속했다. 그가 본 일본은 1932년 암살사건과 쿠데타기도 등으로 군국주의로 기울어 있었고 치안유지법(1925)과 출판법(1935)상의 검열이 심각했다. 군국주의화의 결정적 계기인 1936년 2월 26일의 쿠데타를 직접 목도하기도 했다.²⁹⁾ 일본에서 연구 후 그는 1937년 1월 라이덴 대학에 토쿠가와시대의 농민문제를 다룬 박사논문을 제출했다.³⁰⁾ 1937년 가을부터 콜롬비아대학의 강사, 교수로 재임하다가 1942년부터 본격적으로 미

26) 보튼, 『회고록』: pp.41~42. 그린(Greene)은 후일 IPR의 이사장이 된다. 油井大三郎, 앞의 책 p.16.

27) 그(1910~1989)는 저명한 일본 선교사인 라이샤워(Dr. A. K. Reischauer)의 아들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차 대전시 육군과 국무부에서 일을 했다. 전후에 하버드로 돌아가 일본사 교수와 연구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그는 1961~66년 동안 주일 미국대사를 역임했고 후일 하버드의 석좌교수가 되었다. 보튼, 『회고록』, p.63의 Notes, 3.

28) 그(1908~1980)는 노스웨스턴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캘리포니아와 북경에서 가르쳤고 2차 대전시 CIA의 전신인 OSS(Office of Strategic Studies)와 국무부에서 일했고 록펠러 재단과 오랜 관련이 있었다. 1962~67년 주일 미국대사관에 문화관련 공사(cultural affairs minister)였으며 귀국 후 오하이오의 마이애미 대학에서 정치학교수가 되었다. 보튼, 『회고록』, p.58.

29) 보튼, 『회고록』, pp.57~60.

30) 제목은 "Peasant Uprisings in Japan during the Tokugawa Period"인데 후일 영국왕립학회지(*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15(1938))에 실리게 된다.

국 국무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48년까지 일했다.

그는 1948년 6월 말 콜롬비아대학으로 돌아와 미국에서 일본학을 세우는데 노력했다. 샌섬이 일본학연구소의 소장이 되었고 보튼은 부소장이 되었다. 49년부터는 아시아학연구소(East Asia Institute)에도 관여했고 1952년 가을부터는 샌섬의 뒤를 이어 콜롬비아대학 일본학연구소의 소장이 되었다. 그리고 50년대 일본학의 주요 교재들을 저술했다.³¹⁾ 1952년 가을에 재팬 소사이어티(Japan Society)의 문화교류위원회(Committee on Cultural Interchange)의 책임자가 되어서 미일간 우호관계에 기여했다.³²⁾ 1957년 여름, 모교인 해버포드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같은 해 3월, 1년 임기의 미국 아시아학회(The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회장에 선임되었다.³³⁾ 그의 공식적인 마지막 역할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주도한 미일관계 향상을 위한 정기회의(the United States-Japan Conference on Cultural and Education Interchange, CULCON) 2차 회담 시(일본) 미국 측 대표였다.³⁴⁾ 이후 1967년 해버포드대학을 사임하고 매사추세츠 주로 옮겨가 종교 생활과 소박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1995년 8월 6일 사망했다. 전반적으로 그는 소박하면서도 온건한 원칙을 가진 학자이자 관료, 교육가였다고 볼 수 있다.

31) Hugh Borton, *Japan's Modern Centur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55)가 가장 대표적.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1945-7," "Korea under American and Soviet Occupation, 1945-7," *The Far East*, (London · New York ·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한국전문가 맥쿤(George M. McCune)이 살아있었다면 한국관련 부분을 맥쿤이 작성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튼도 이점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책' p.431.

32) 보튼, 『회고록』, p.244.

33) 보튼, 『회고록』, pp.255-256. 회장 재직 시 그는 미국의 아시아학회의 현황에 대한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Asian Studies and the American Colleg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18, No. 1(Michigan,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Nov., 1958).

34) 보튼, 『회고록』, pp.258-259.

Ⅲ. 태평양전쟁 전후 대일정책 구상

1. 대일정책 구상 참여와 휴 보튼의 위상

보튼은 1937년 가을부터 1942년 전쟁발발까지 콜롬비아대학에서 일본사 강사, 조교수를 역임했다.³⁵⁾ 주목되는 것은 그가 이 무렵부터 미국 외교정책 연구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1938년, 여름 IPR의 국제총무 카터(Edward C. Carter)로부터 최근의 일본 정치, 경제, 사회상황에 대한 글을 부탁받았다. 이 연구회는 당대의 젊은 아시아연구 전문가들의 등용문역할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강한 중국론', '강한 일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포진하고 있었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정부는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 이 단체의 회의에 보튼은 간사로 계속 참가했다.³⁶⁾ 전운이 감도는 1941년 7월 미국 군부는 학술단체평의회(the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와 함께 코넬대학에서 일본어교수법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고 보튼이이 회의의 간사를 맡았다.³⁷⁾

그는 41년 가을, 미국외교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이하 CFR)의 연구모임에 참석했는데 CFR의 구성원은 사실 IPR의 인맥과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³⁸⁾ 협의회의 산하에 63개의 연구그룹이 있었고 이 중 15개가 극동관련 모임

35) 1937년 가을에 처음으로 일본학 석사학위과정과 일본학연구소(the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가 생겼고 1939년 가을 학기부터 박사과정이 가능했다. 1938년 가을부터 록펠러재단(the Rockefeller Foundation)의 도움으로 일본학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보튼, 『회고록』, pp.68-71.

36) 이 작업이 Hugh Borton, *Japan Since 1931: Its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American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nc., 1940) 이다. IPR과 CFR에서의 보튼의 역할에 대해서는 油井大三郎, 앞의 책, pp.27~32, 59-61 등 참조.

37) 이 회의의 결과 41년 가을 학기부터 미국의 중요대학에 일본어 집중과정이 마련되었다. 보튼, 『회고록』, pp.76-78.

38) 이 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정부와 관련이 없었지만 참여학자들의 국무부와 밀접한 관련으로 외교정책에 영향력이 컸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중 국무부에 들어

으로 그는 “미일간의 진정한 평화의 기초 The Basis of Real Pe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을 다루는 그룹에 참여했다. 이 모임의 수장이 후일 국무부 일본담당으로 그의 상관이 된 블라키스리(George H. Blakeslee)³⁹⁾이다. 이 협의회에서의 협력의 경험은 후일 국무부 내 두 사람의 긴밀한 협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연구모임은 전후 일본과 식민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에 착수했는데 여기서 합의된 것은 일본의 강력한 군국주의는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되므로 철저히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을 경제적으로 약화시키자는 미국 체계모니를 강화하지는 입장과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적 입장에서 일본을 강화시키자는 입장이 혼재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⁴⁰⁾ 보튼과 블라키스리는 전후 일본에 국제무역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들은 일본제국의 식민지인 한반도를 점차 독립시키는 안을 주장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조 외에는 모호했다.

반전사상을 가진 웨이커 교도인 보튼은 이들 모임을 통해 일본과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결국 발발했다. 자신의 신앙양심상 군대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후계획을 구상하는 국무부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 그것과 별도로 보튼은 버지니아대학(the University of Virginia in Charlottesville) 소재 육군부 민정국(the

간 경우가 많았다. 보튼과 이 협의회 관계는 油井大三郎, 앞의 책, pp.59-62.

39) 그(1871-1954)는 당시 극동지역에 관심을 가진 몇 안 되는 학자로서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의 유명한 클라크대학(Clark University)의 교수였다. 1차 대전 후 파리 평화회담과 워싱턴회담을 준비하는 위원회에 소속되었고 일본의 만주침략 후 리튼위원회(Lytton Commission)의 특별고문을 역임했다. 태평양전쟁 기 국무부에서 일본연구 책임자로 동아시아의 전후계획을 지휘했고 전후 일본문제처리를 위한 연합국의 극동위원회(the Far Eastern Commission) 미국 측 특별고문으로 활동했다. (<http://www.clarku.edu/offices/library/archives/BlakesleeBio.htm>).

40) 전자의 대표적 인물은 테오도르 루즈벨트의 한국정책을 옹호했던, 프린스턴 대학교수와 윌리엄스(Williams)대학 총장을 역임한 Tyler Dennet였고 후자는 OSS극동부장과 대일경제정책의 입안에 종사한 C. F. Remer였다. 油井大三郎, 앞의 책, pp.61-64.

Civil Affairs Division of the War Department) 소속 학교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일본어와 역사에 대해 1942년 6월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민정학교에서 가르친 경험은 전쟁 막바지에 군부 측과 함께 전후계획을 논할 때 두 기관사이의 협력을 원활하게 했다.⁴¹⁾

그는 1942년 10월부터 국무부에서 특수조사국(Division of Special Research, 이하 SR)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⁴²⁾ 국무부 체제 개편으로 정치국(Political Studies Division)에서 일했다. 그리고 정치국 소속의 영토소위원회(Subcommittee on Territorial Problems, 이하 TS)와 TS의 상위기관인 극동지역 국간 협의회(The 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 for the Far East, 1943년 10월부터), 전후기획위원회(Postwar Programs Committee, PWC,⁴³⁾ 1944년 1월 14일부터)에서 활동했다. 2차 대전이 조속히 종전될 것이라는 확신 하에 미 군부 측과 국무부는 당국의 전후계획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삼성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SWNCC,⁴⁴⁾ 1944년 11월 29일부터)를 설치했는데 그는 대일관련 보고서 작성에 핵심적 인물이었다.⁴⁵⁾

그런데 전후계획과 관련해서 보튼의 위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태평양전쟁 전 CFR은 일본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의

41) 보튼, 『회고록』, pp.82-83.

42) SR은 당시 파스볼스키(Leo Pasvolsky) 박사가 이끌었다. 보튼, 『회고록』, pp.83-84. 그 후 이 조직은 전후외교자문협의회(An Advisory Committee on Postwar Foreign Policy)로 흡수되었고 산하의 영토소위원회(Territorial Problems Subcommittee)가 일본문제를 다루었다. 국무부 전후기획과정에 대한 설명과 도표로는 정용욱, '앞 책', pp.19-33과 p.23.

43) PWC paper 시리즈는 이 협의회를 위한 것이다.

44) SWNCC paper 시리즈는 이 협의회를 위한 것인데 대략 TS의 보고서인 T시리즈와 PWC보고서를 발전시킨 것이다.

45) 일본전후계획에 참여한 보튼의 역할과 미국의 대일정책에 대해서는 보튼 자신이 저술한 책들 중 1941-1948년 부분이 매우 유용하다. 보튼, 『회고록』, 8-10장, Borton *Japan's Modern Centur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55). 19-20장 참조. 패전이후의 미국의 대일정책은 그의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1945-7," *The Far East*, (London · New York ·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해외영토의 몰수와 비군사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본내정 개혁에 대해서는 일정한 민주화 후 경제부흥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온건한 입장이 주류였다. 그런데 이는 현장경험이 좀 더 많았던 IPR인사들이 일본의 재벌해체와 농지개혁, 식민지민에 대한 우호적 정책 등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두 가지 조직에서 다 활동했던 보튼의 경우는 자기의 스승격인 블라키스리와 함께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비군사화에 동의한다는 면에서는 IPR의 입장과 유사하지만 전후 일본의 세계경제질서에 복귀를 생각했다는 점에서 온건파였다. 또한 천황제를 유지하되 행정면에서 천황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도 중도적인 입장에 가까웠다. 그는 미국이 일본내정개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는 헌법개정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⁶⁾

2. 전후 구상의 특징: 천황제와 전후 헌법문제

그의 전후 대일 구상의 특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은 미국의 전쟁 수행과 일본 점령의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전후 평화를 위해서는 군부 세력을 제거해야한다고 했는데 이는 CFR 단계부터 합의가 되어 있었다. 다만 군부제거 후 일본에게는 경제회복을 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계속 주장했는데⁴⁷⁾ 종전 전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었다. 후일 냉전의 도래와 함께 1947년 초부터 미군정은 일본의 경제회복에 동의한다.

둘째, 점령지 일본에서 간접통치를 하지는 것이다. 군정당국이 정책결정을 담

46) CFR토론에서의 보튼의 입장은 CFR, Record, 1941~42, Minute of the 5th Meeting, 油井大三郎, 위의 책, p.65에서 재인용.

47) 그의 보고서 "Japan: Postwar Political Problems"(T 381) (August 12, 1943).

당하지만 행정실행을 일본인들에게 보다 많이 맡기지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군정에는 많은 인력이 든다는 것과 관련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독일과 달리 직접 통치는 피하고 간접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 문제는 전전(戰前)의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개혁이 가능하다는 그의 가정과 관련이 있다.⁴⁸⁾

셋째, 전후 일본 점령에 참여할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이다.⁴⁹⁾ 보튼은 다른 국가들의 참여가 미국의 주도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일본 군정은 단일한 행정이 되도록, 즉 분할통치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태평양전쟁 종전까지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싸웠다는 이유로 위의 문제에 대한 그의 보고서는 국무부내에서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일본의 전후 위상에 관련되어 중요한 문제는 역시 천황제와 일본 헌법개정의 문제였다. 천황제 문제와 관련해서 그가 주장한 조건은 천황의 인간선언과 무한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 또한 종전 후 일본인들이 원하면 즉각 천황을 폐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천황제에 대한 논쟁은 1943년 12월부터 근 2년 동안 미국의 대일정책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였다.⁵⁰⁾ 이 문제는 1944년 4월 24일 있었던 PWC산하의 극동관련 위원회(the Far Eastern Area Committee)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상이한 디코버(E. R. Dickover)와 보튼의 안이 제출되었다. 전자의 안은 일본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천황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후자는 천황에게 하급관리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대부분의 권한을 제거하자는 입장이었다. 또한 일

48) 위의 보고서. 그러나 그의 생각과 달리 1952년 미일 강화조약 직후부터 일본의 전전(戰前) 통치세력들이 미군정하의 정책(특히 경찰과 교육부분에서의 지방분권형 민주주의)을 뒤엎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이것은 그가 가졌던 가정이 의문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Hugh Borton eds., "Politics and the Future of Democracy in Japan," *Japan Between East and West*,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7), pp.4-5.

49) "Japan: Occupation and Military Government. Composition of Forces to Occupy Japan" PWC 111, March 13, 1944. 보튼, 『회고록』, pp.110~111.

50) 보튼, 『회고록』, p.95.

본의 항복 후 천황가의 사람들을 보호 감찰할 것을 주장했다. 4월 26일 이 안건은 13명의 위원들에 의해 토론되었는데 보튼의 안에 디코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지했다. 특히 극동국 책임자인 그루 전 주일대사(Joseph C. Grew)⁵¹⁾라든가 극동국의 중요관리인 발랜타인(Joseph Ballantine)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국무부의 안으로 채택되었다.⁵²⁾

천황제 존속구상은 그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1928년 히로히토가 천황 등극을 위해 교토로 여행했을 때 국민들이 존경을 표하는 것과 1936년 2월 26일 쿠데타 발생 시 천황의 명령에 군인들이 복종하는 것을 보았다. 패전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천황제가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⁵³⁾ 그의 가정은 천황제 유지와 과시즘 해체가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일본 민의(民意)와도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⁵⁴⁾

일본 군부의 해체와 변화된 천황제를 위해 일본 헌법을 개정해야했다. 그의 헌법에 대한 구상은 T381에 기초한 SWNCC 228문서로 나타났다.⁵⁵⁾ 이것은 천

51) 1932년부터 42년까지 주일 대사를 역임했는데 30년대 중후반 천황제와 직결된 식민지 조선의 신사참배문제를 국가의례로 생각하면서 신사참배에 반대한 평양지역 자국 선교사들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천황가의 인물들과 대사 재임 시 깊은 교류가 있었다. 30년대 신사참배문제와 미 대사관, 총영사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안종철, 「윤산운의 교육선교활동과 신사참배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5). 그루대사와 천황제문제는 中村政則, 『象徴天皇制への道-米國大使グルとその周辺』(東京, 岩波書店, 1989)을 참조.

52) 이 문제는 Akira Iriye, *Power And Culture: The Japanese- American War, 1941~1945*.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206~209에 자세하게 논의되었고 토론 후 만들어진 문서가 바로 PWC 116d (May 9, 1944) "Japan, Political Problems: Institution of the Emperor" i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44, Vol. 5, pp.1250~1255인데 이 문서는 T-381과 유사하다.

53) 위의 PWC116d.

54) 천황제가 오늘날에도 일본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의 구심점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55) 45년 10월에 SWNCC의 극동소위원회(Subcommittee on Far East)에서 채택된 "The Reform of the Japanese Government System"(SFE 142에서 SWNCC 228로 개명)이다.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보튼, 『회고록』, p.95, pp.163~164.

황에게 군통수권을 부여한 구헌법 11~12조가 군부지도자들로 하여금 내각과 의회를 피해서 천황과 직접 교섭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켜왔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력에 의한 분쟁해결을 영구히 포기시키는 것과 아울러 천황의 실제 권력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 결과 행정과 입법의 권한을 내각과 의회로 돌리고 전후 정부의 형태를 일본인들의 의사(will)와 조화되도록 하려고 했다. 헌법 개정안은 종전 후 우여곡절을 겪지만 주일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는 보튼의 기본정신을 채택했다.⁵⁶⁾

일본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상관이었던 블라키스리 박사와 정신적 스승인 샌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종전 직후에는 천황제를 유지하는 쪽에 보다 많은 국무부관리들이 손을 들어주었고 극동국장인 빈센트(John Carter Vincent)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⁵⁷⁾ 보튼은 종전 후 국무부 극동국의 일본과 책임자가 되면서 대일정책의 집행을 직접 목도했는데 냉전의 도래로 초기의 미소협조외교라든가 일본내부의 개혁이 일정하게 후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⁵⁸⁾ 보튼의 생각은 일본 민주주의의 성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전초기 매카시의 공산주의자 목록에 올라갔다.⁵⁹⁾

56) 전후 일본 동경의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와 국무부사이에 헌법개정을 두고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그것은 맥아더 사령부가 독자적으로 헌법초안을 일본 측과 상의해서 만들려는 것에 국무부 관리들이 제동을 건 사건이다. 맥아더 사령부가 보튼안을 기초로 한 국무부의 안을 받아들여므로 갈등이 해소되었다. Koseki Shōichi(translated by Ray A. Moore), *The Birth of Japan's Postwar Constitu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8) pp.141~146.

57) 보튼, 『회고록』, pp.96~98

58) 종전 후 그의 보고서와 실제적인 정책집행은 보튼, 『회고록』, 12~13장, 15장.

59) 보튼, 『회고록』, pp.229~230. p.256. 그가 아시아학회 회장이 되자 이 학회가 IPR 회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므로 미 의회는 이 기관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언론에 실렸다. 2년 후 혐의가 풀렸지만 50년대 미국사회의 매카시즘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IV. 한국문제 인식과 신탁통치 구상

미 국무성의 관리들은 태평양전쟁 발발 후 한국정세를 분석하고 신탁통치구상을 제시했다. 1943년 12월 1일의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전후처리 원칙으로 일정 기간 후(in due course)독립시킨다는 것이 발표되었지만 이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거대전략'이 반영된 것이었다.⁶⁰⁾ 카이로회담 직후 블래키스리와 보튼은 자신들의 전후구상이 행정부차원에서 소외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 후 한국에 관한 구상도 구체성을 띄었다. 한국문제는 일본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소관이었으므로 보튼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매우 부족했다. 한국에 대한 정보는 일본 관변자료가 주류였는데 이는 서울 총영사관(Consul General)의 위상 자체가 낮았던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태평양전쟁 전 한국은 미국 영사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다. 1930년대 서울 총영사관 직원들은 일본 관리들과 주로 만났다.⁶¹⁾ 30년 여름의 한반도 여행과 기숙학교 사감 당시 한국 학생을 만난 정도가 보튼이 한국을 이해하는 배경이었다.

그는 한국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되는 카이로회담 직후인 1944년 초부터 대부분의 한국관련 회의와 문서작성에 참가했다.⁶²⁾ 국무부는 이미 1943년 4월 전

60) 보튼은 국무부의 어떤 관리도 한국에 대한 조항의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했다. 국무부내 관리들의 반응은 보튼, 『회고록』, p.98. 그리고 카이로회담과 함께 알타회담 시(45년 2월) 국무부의 여러 가지 안, 특히 한반도의 점령구역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대통령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알타의 한반도 신탁통치안도 스탈린을 유엔질서로 끌어들이는 측면에서만 설명되었다고 한다. "Korea under American and Soviet Occupation, 1945-7," *The Far East*, (London·New York·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pp.429-430의 각주 1번.

61) 보튼, 『회고록』, p.122. 식민지 시기 미국영사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The Western Experience 1900-1950*, (Norwalk, CT, EastBridge, 2003) pp.76-79.

62) 극동지역을 위한 국가 협의회와 전후기획위원회(PWC)에 영토소위원회(TS) 대표로 블래키스리와 함께 참여했다. Records of Harley A. Notter, 1934-45 중 1944년 3월

황이 미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정치국 소속의 TS에서 T-316~319시리즈의 보고서를 작성했다.⁶³⁾ 이후 국무부 구조개편에 따라 1944년 11월에 영토소위의 일부 기능이 극동문제에 대한 국간 협의회(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 on the Far East)로 이관됨에 따라 이 보고서들은 H-Paper시리즈⁶⁴⁾로 약간 수정된다. H시리즈는 국무부에서 전쟁 막바지에 SWNCC에 제출되게 되고 전쟁 전 국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된다. 물론 이들 보고서가 그대로 한국에 대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후 한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구상단계에서의 분석과 제안의 특징은 의미가 있다.⁶⁵⁾

첫째는 한반도의 영토와 국경문제이다.⁶⁶⁾ 일본이 간행한 『통계연감』⁶⁷⁾등을

22일 47회, 3월 24일 49회, 3월 27일 51회 국간협의회 등. 이 보고서들은 정용욱·이길상 편,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집』1권(서울, 돌베개, 1994)에 수록.

- 63)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T-316 "Korea: Territorial and Frontier problems" May, 1943, T-317 "Korea: Economic Developments & Prospects" May, 1943, T-318 "Korea-Internal Political Structure" May, 1943, T-319 "Korea: Problems of Independence" May, 1943. (Records of Harley A. Notter, 1934~45) 이 보고서들은 1943년 4월부터 준비가 되었다. 이 문서들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국무부 외곽연구단체로 성격이 바뀐 태평양문제연구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의 연구원들과 위원들이 주 회원이 된 전후외교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Post-War Foreign Policy)에서 검토하던 문제를 체계 있게 정리한 것이다.
- 64) H-Paper시리즈는 1945년 1월 6일 한국문제 소위원회(Subcommittee on Korean Questions)에 제출되었는데 주로 맥쿤(Georeg M. McCune)과 보튼이 작성자이다. T보고서와 대동소이하다. 보튼의 보고서는 H-200 "Korea: Political Problems: Need for International Supervisory Authority" November 13, 1944, H-202 "Korea: Security Problems: Technical Military Assistance" November 13, 1944, H-203 "Korea: Security Problems: Armaments" November 13, 1944 등이다.
- 65) 한국상황에 따라 미국의 대한정책은 해방 전 국제민간행정기구안이 해방 후 4대국의 신탁통치안(SWNCC 176/8)으로 변형되었고 45년 말 모스크바 3상회의 후 변화된 상황과 1, 2차 미소공위를 거쳐 결국 남한단정안이 수립되었다. 이 과정에 대한 뛰어난 분석은 정용욱, 앞의 책, 특히 1장과 3장.
- 66) T-316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 67) 보고서의 모든 지명은 일본어로 되어있다. 보튼이 어떤 자료에 의존했는지 알 수 있다.

사용해서 간도, 연해주, 일본 등지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인구수와 성격을 다루었는데 한국과 중국, 한국과 소련간의 경계지역인 두만강 일대와 함경도 지역에서 발생할 국제적인 갈등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했다. 이는 중국과 소련의 ‘일본해’로의 접근과 부동항획득 시도의 가능성 때문이다. 영토부분은 한중, 한소간의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보다는 한국을 독자적으로 만들면서 이 지역의 생산물과 상품이 자유롭게 일본해에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경제적 국제협조를 강조하는 전후 대원칙과 관계가 있다.

둘째는 한반도의 경제상황과 전후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인데⁽⁶⁸⁾ 한국의 경제자립 가능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농업문제에서 한국인들의 쌀 소비의 격감과 토지소유의 불균등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문제에 있어서 1937년 이후의 엄청난 팽창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광산, 수력, 화학 공업 그리고 수송의 문제 등의 엄청난 진보를 언급했다. 전쟁 시 일본에 의한 산업팽창은 전후 일본과 평화적으로 연결된다면 한국의 필요에 부응해서 경제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후 한국에서 일본인 민간인과 관료들이 떠날 때 한국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다루면서 일본인 기술자들을 일정기간 한국에 두고 한국인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일본내의 한국 노무자들에 대한 차별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⁶⁹⁾

핵심은 일본 제국하의 한국경제가 전후에 자생적인 단위가 되기에 무리므로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무역이 절대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일본경제의 한 부분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대일 수출의 유지가 한국경제 생존에 필수적이다. 흥미 있게도 일본경제가 한반도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렴한 노동력, 수력, 지하자원, 특히 쌀 문제에서 10-15% 정도의 의존이 있다고 지적함과 아울러 일본이 한국에 대해 5억 엔 정도의 초과 이익이 있다고 했다. 이는 결국 전후에도 한일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⁷⁰⁾

68) T-317.

69) 위의 T-316 보고서.

세 번째가 국내의 정치구도라든가 한인들에 대한 평가로 그의 보고서의 특징으로 한국의 독립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⁷¹⁾ 그의 보고서와 회고록은 당시 랭던과 같은 직업적 관료가 가진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식민지말 한국이 일본의 일부분으로 더 강력히 편입 되면서⁷²⁾ 상당한 한국인들이 일본 관료제라든가 산업계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이 소외되고 있으므로 한국인들 가운데 책임 있는 관료나 기술자들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당시 작업에 함께 참가한 국무부의 한국전문가였던 조지 맥쿤⁷³⁾과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에서 기능하고 있는 자치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은 민주주의 훈련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보튼의 성장배경, 테네시 지역민들과의 접촉, 선교사의 경험, 중국과 한국에 여행 등을 통한 성숙한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위의 분석과 관련해 전후 한국의 독립가능성과 신탁통치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는데 그 근거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루즈벨트에 의한 전후 식민지 통치 지역에 대한 일반적 원칙의 적용이다. T-319는 식민통치와 한국의 독립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종합적인 보고서로 대서양헌장(1941. 8)이 한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탁통치는 국무부에서 1차 대전 후 한 국가에 의한 위임통치의 한계로 제기된 것이다. 국제연합을 통해 여러 국가들이 책임을 나누

70) 위의 T-317 보고서.

71) T-318보고서. 이 보고서는 약간 수정 후 국무부 관보에 게재되었다. "Korea: Internal Political Development,"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November 14, 1944, pp.578~83.

72) 1931~33년의 지방제도 개혁과 1942년 11월 1일 한반도의 일본 내지 편입이 중요.

73) 맥쿤은 조선시대에 한국에서는 작은 마을과 친족내부(the social circle of the family) 정도에서만, 그리고 식민지시기에는 역시 작은 마을과 기독교단체에서만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훈련을 쌓을 수 있었다고 했다. George M. McCune, *Korea Toda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p.6, 15. 그는 한국의 다양한 파벌주의의 현상을 인정했지만 한국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단일한 문화와 인종 등과 한국의 강한 개인성이 민주주의를 충분히 실행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맥쿤의 보고서, H-207 "Korea: Capacity for Independence: Possibility of Adequate Harmony" (November 27, 1944).

는 신탁통치가 2차 대전 후 대안으로 떠올랐다.⁷⁴⁾

신탁통치에 대한 두 번째 고려요소는 한국인의 정치성향과 국제정치적인 면이다. T-319는 중경임시정부와 재미 한족협의회(이승만과 관계), 조선민족 혁명당과 그 미주 지부인 중한민중동맹(한길수)등의 연합가능성과 갈등을 다루었다. 특히 분파와 자치경험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들보다 소련 영내 한인들의 자치경험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흥미로운데 특히 소련의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다루어진다. 한국인들은 이 지역에서 다양한 민주적 훈련을 받았고 국내보다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⁷⁵⁾ 국제적인 요소로는 소련의 입장이 고려되었다. 소련이 중경임시정부 승인을 받아들일 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므로 미국은 쿠바의 예를 따라서 한국에서도 종전 전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되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과의 협조를 통해 소련 영내의 한인들이 한국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당시 미국은 장개석의 임정승인에 대해서도 전후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을 우려해서 승인하지 않았다. 임정승인이 신탁통치안과는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⁷⁶⁾

세 번째는 한국의 독립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다. 내적 요소로 역시 식민지 시기 한국인들이 정치적 자유와 국가를 운영할 경험을 박탈당한 것과 젊은 세대가 일본제국에 깊게 편입되고 있음을 주시했다. 특히 경제가 철저히 일본에 소속되어있음을 고려할 때 결국 완전한 독립 전에 과도기가 있어야 했다. 경제에 대한 고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이 문제로 부터 한국의 지위에 대한 대안들이 제기되었다. 첫째는 그냥 일본의 영토로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74) 신탁통치에 대한 논의는 국무부내의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정치연구국(Division of Political Studies)의 회의 내용에 잘 나타나있다. 대표적으로 P-Min 51 1943년 4월 10일 모임.(Records of Harley A. Notter, 1934~45, Box 55) 정용욱·이길상 편, '앞 책' (1994). 서양식민사에서 신탁통치의 위치는 구대열, '앞 책', pp.238~246 참조.

75) 위의 T-316 보고서.

76) 정용욱, 앞의 책, pp.82~83.

많은 농가 문제들(소작인, 토지집중 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의미했으므로 제외되었다. 두 번째 안은 즉시 독립을 시키는 것인데 이는 자본의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었다. 특히 중경임시정부의 중요산업 국유화 프로그램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자본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을 인정한 위에서 국제 신탁통치하 자치정부(Self-Government)의 활동기간을 확보해두는 것이 대안이었다.⁷⁷⁾

한편 이러한 과도기 설정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책임을 맡기 보다는 유엔의 개발회사(UN Development Corporation)라든가 신탁통치 행정 기구 내 특수 부서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안을 주장했다.⁷⁸⁾ 국제적 관리의 과도기에서⁷⁹⁾ 그 형식은 하나 혹은 삼개국(중, 소, 미) 관리보다는 관리위원회(Supervisory Council)의 국제행정기구(International Administration Authority)를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⁸⁰⁾ 결국 종전 전 이것이 대안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 함의는 한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한국이라는 시장에 독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직접 책임을 맡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였다. 그는 전후 한국에 주둔하는 연합군은 중국, 미국, 영국, 소련(참전한다면)의 다국적군으로 이루어지고 미군 사령관의 주도하에 중앙행정을 담당하는 체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분할해서 군정이 된다면 각 군정은 속히 합쳐져야 하며 그 행정에는 한인들을 가능한 한 많은 영역에서 사용하고 훈련할 것을 주장했다.⁸¹⁾ 그러나 이러한 국

77) 위의 T-317 보고서.

78) 위의 T-317 보고서.

79) 국제적 과도기를 설정하기 위해 그리고 국제행정기구에서 한국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의 한 정치집단을 지원하는 것은 반대했다. 그래서 임시정부 불승인이 따라왔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의 독립을 이른 시기에 혹은 종전 전에 공식확인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쿠바도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T-319 보고서.

80) 위의 T-319 보고서.

81) "Korea: Occupation and Military Government"(PWC125)(November, 1944). 보튼, 『회고록』, p.123에서 재인용.

무부 실무진의 분할 점령반대는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 선언으로 좌절되고 군사적 입장이 더 고려가 되어서 한반도는 결국 분할 점령되었다.

V. 맺음말

신탁통치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학계에서는 미국이 전후 자본의 자유로운 접근근대를 위해 설정한 것, 영국, 소련 등과의 이해 조정을 위한 것, 혹은 기존 구한말부터 지속된 서구인들의 한국독립능력에 대한 불신 등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식민지 조선이 가졌던 경제, 산업, 사회 등에 대한 보튼과 같은 미국 측 실무진들의 평가이다. 그는 철저히 일본의 부분이 된 한국의 정치·경제가 자생 가능한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과도기 설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냉전의 도래와 함께 미국은 이해관계를 재조정해야 했고 일부 한국인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신탁통치보다는 단정이라는 노선으로 현실화되었다.⁸²⁾

그의 경우는 냉전이 도래하기 전, 전후 미소협조정책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진 국무부 실무관료였지만 결국 후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형성에 동의했다. 보튼은 일본의 전후계획에 깊게 개입했고 그가 제기한 많은 대안들이 전후 일본사회에 대부분 적용되었다. 특히 천황제유지와 헌법개정은 대표적인 부분이다.

보튼은 선교사로서, 학자로서, 관료로서 전전과 전후의 미일관계 형성의 한 축을 담당했다. 특히 전후에 콜롬비아대학의 일본사 교수로서 전후 미국의 일본 인식의 한 지점을 형성했다. 한편 그가 한국문제에 대해 상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간 학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한국전문가였던

82) 보튼은 국무부의 일본 책임자로 47년 4월까지 계속 신탁통치문제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실행하기 노력했다. "Situation Report on Operations of Joint U.S.-USSR Commission Covering Eighth Through Twelfth Sessions," *Office Memorandum*. United States Government, April 12, 1946. 1947년 4월 10일. 이승만 서한철 (국사편찬위원회).

쥘리 맥쿤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튼은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맥쿤의 때 이른 사망으로 한국문제는 1950년대 미국사회에서 일본사를 담당할 보튼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다루어졌다. 전후 미국내 한국과 일본의 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로서, 맥쿤의 저서인 *Korea Today*는 냉전 하에서 유명한 책이 아니었는데 반해⁸³⁾ 보튼의 *Japan's Modern Century*는 미국에서 50년대 가장 인기 있는 일본사 교재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맥쿤의 때 이른 사망은 자신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성장하던 한국학의 발전을 지체시켰다.⁸⁴⁾ 두 사람의 인생과 저작은 전후 일본과 한국관련 지식의 미국사회에서의 불균형적인 위상을 보여준다.

주제어 : 태평양전쟁(the Pacific War), 휴 보튼(Hugh Borton), 대일정책(US Policy toward Japan), 대한정책(US Policy toward Korea), 퀘이커선교사(Quaker Missionary), 신탁통치(Trusteeship), 일본학(Japanese Studies)

투고일(05. 07. 06), 심사시작일(05. 07. 23), 심사종료일(05. 12. 02)

83) 후일 국무장관이 된 덜레스(Foster Dulles)는 한국전쟁 직후에 IPR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책의 가치와 저자에 대해 힐난했다. Dulles Papers, box 48, Dulles to Holland, August 17, 1950.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639. 그의 편지는 p.891에서 재인용.

84) 당시 콜롬비아대학의 중국학 교수인 윌버(Martin Wilber)교수는 맥쿤의 사망은 한국학의 성장에 큰 타격이라고 조사(弔詞)에서 말했다. C. Martin Wilber, "Memorial Article for McCune," *The Far Eastern Quarterly*. Vol. 9, Issue 2 (Michigan,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Feb., 1950).

부록

1. 보튼의 생애⁸⁵⁾

- 1903년 5월 14일 뉴저지 무어스타운의 웨이커집안에서 출생
- 1919년 웨스트타운(Westtown)학교에서 역사와 외국어 공부시작
1922. 9-26. 6 해버포드대학에서 공부
- 1926년 8월 말. 윌버 양과 결혼 직후 교사생활
- 1926~28년 테네시의 스모키 산맥에 있는 웨이커 학교인 프렌즈빌 아카데미에서 교사생활
- 1928~31년 필라델피아의 웨이커 선교회의 일본선교사로 일본 웨이커회 대표인 보울스를 도움. 부인은 여자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침.
- 1928년 10월경부터 영국대사관 직원인 조지 샌섬이 주관하는 일본역사와 문화 세미나에 지속적으로 참가.
- 1931~37년 콜롬비아(처음에 교육학), 하버드, 라이덴 대학에서 일본학 공부(라이덴 대학에서 박사학위)
- 1937~1942년 콜롬비아 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역임
1942. 여름-가을 육군성 민정학교 일본학 교수 시작
1942. 10-1948. 6. 30 국무부 극동국에서 일본과 한국관련 정책보고서 작성. 일본과 부책 입자. 책임자 등 역임.
- 1947년 4월 5~11일에 한국을 방문해서 주요 정치지도자들 김구, 조소앙, 여운형, 김성수, 김규식, 안재홍 등을 면담.
1948. 가을-1957. 6. 가을 콜롬비아 대학 일본사 교수 겸 일본학 연구소 부소장, 52년 가을부터 소장 역임.
- 1957~58년 미국 아시아학회 회장
1957. 가을-1967년 여름 하버포드대학 총장
- 1961~62년 미일협력협회 미국 측 단장으로 일본을 방문함. 당시 주일 미국대사였던 라이샤워를 만남.
- 1967년 총장 퇴임 이후 서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로 가서 생활.

85) Hugh Borton의 회고록 참조해서 작성. 연도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미국의 학기(9월-이듬해 5월)를 기준.

1995. 8월 6일 사망

2. 보튼의 저작

Borton, Hugh. "Peasant Uprisings in Japan during the Tokugawa Period",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15, 1938.

_____. *Japan Since 1931: Its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American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nc., 1940.

_____. "Review of The Infiltration of European Civilization in Japan During the 18th Century", *The Far Eastern Quarterly*. Vol. 1, No. 2, Feb., 1942, pp.186~188.

_____. "Korea: Internal Political Development",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Nov., 1944, pp.578-83.

_____. "Review of *The Japanese Family System; The problems of the Emperor System in Postwar Japan; Financial and Monetary Situation in Postwar Japan; General Trend of Japanese Opinion Following the End of War; Some Aspects of Agrarian Reform in Japan; Religion and Democracy in Modern Japan*", *The Far Eastern Quarterly*. Vol. 9, No. 3, May, 1950, pp.362~265.

_____. "Review of *Japan Since perry*", *The Far Eastern Quarterly*. Vol. 10, No. 1, Nov., 1950, pp.104~105.

_____. eds. *Japan*.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51.

_____. et al. eds. *A Selected List of Books and Articles on Japan, in English, French and Germ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_____. *Japan's Modern Century*. NY: Ronald Press, 1955.

_____. "Review of *Wanted: An Asian Policy*", *The Far Eastern Quarterly*. Vol. 15, No. 1, Nov., 1955, pp.112~115.

_____. et al. eds. *Japan between East and West*. NY: Harper and Brothers, 1957.

_____. "Asian Studies and the American Colleg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18, No. 1, Nov., 1958, pp.59~65.

- _____. "Preparation for the Occupation of Japa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25, No. 2, Feb., 1966.
- _____. *Spanning Japan's Modern Century: the Memoirs of Hugh Borton*, Lanham • Boulder • New York • Oxford: Lexington Books, 2002.
- F. C. Jones, Hugh Borton, and B. R. Pearn, *The Far East 1942~1946*, in Survey of International Affairs 1939~1946 series, Ed. Arnold Toynbe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Abstract〉

Hugh Borton and his Percep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Korea during the Pacific War

An, Jong-Chol

This paper deals with Hugh Borton and his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Korea. Hugh Borton was an expert on Japan at the Department of State during the Pacific War and prepared several papers for Korean trusteeship. He came to Japan as a Quaker missionary in his youth, and returned to the U.S. for Japanese Studies. During and after the Pacific War, he actively participated in making policies toward Japan. He tried to get rid of Japanese militarism while preserving the emperor system. His policy recommendations was almost fully adopted by the U.S. government. After he returned to Columbia University, he tried to establish Japanese studies in a higher education.

It is not well known that he wrote many papers related to postwar policy toward Korea. He analysed in his papers Korea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 conclusion of his researches is that considering Korean total submission to the Japanese Empire, the U.S. government should secure some period for the trusteeship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before Korean independence. He did not belittle Korean capacity for independence but thought that it was very hard for Korean people to have a autonomous system in politics and economy. As his case shows, some experts on East Asia in the U.S. had the relation between the Japanese Empire and colonies in their minds.